

'사랑의 자물쇠' 끊으러 한국으로 날아간 미국 여성



▲ 사진=TikTok(kassieyeung)

사랑은 시작만큼이나 이별 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깔끔한 이별을 위해 LA에서 서울까지 날아간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일 '인사이드' (insider.com)는 전 남자친구와 N서울타워(일명 남산타워) 앞의 전망대 난간에 걸어두었던 '사랑의 자물쇠'를 끊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간 여성 캐시 영(Kassie Yeung, 23)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에 사는 캐시는 지난 2019년 여름, 당시 남자친구와 N서울타워 데이트 중 자물쇠를 구입해 난간에 걸었다. N서울타워 자물쇠는 '영원한 사랑'을 이뤄준다는 속설이 있어 이곳에 자물쇠를 거는 커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도 헤어지는 커플도 적지 않아 "N서울타워에 자물쇠를 걸면 헤어진다"는 풍문도 있다.

캐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했다.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은 캐시는 깔끔한 이별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갔다. 둘만의 사랑의 증표였던 자물쇠를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 과정을 영상에 담아 공개했다.

영상에서 캐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와이어 절단기를 구입해 남산으로 향했다. 캐시는 수많은 자물쇠들 사이에서 약 30여 분을 헤맨 끝에 그와 전 남친이 함께 걸어두었던 자물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절단기를 이용해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속이 후련한 듯 카메라를 향해 자물쇠를 들어 보이며 인증했다.

그녀는 '사랑의 자물쇠' 절단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이별을 겪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달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푸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제 71 주년 한국전 기념식 및 CA미주한인공화당 창립식

미주한인이민 120년 250만 미주한인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 주류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주한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류사회와 함께 미국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뜻깊은 기독교 신앙과 보수공화당의 가치와 성경적 도덕관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창립총회'를 제71주년 한국전쟁기념예배와 함께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 준비위원장 이우호목사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오전11시

장소: SS Lane Victory Warship

(홍남철수작전시 군함과 같은배로 원산철수작전시 7,004명을 구출한 함선)
3011 Miner St, San Pedro, CA 90731

연락처: (754) 779-5887 www.crkpc.org

R.S.V.P. (사전예약) by 6월23일

*점심 및 좌석준비 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전국미주한인공화당

명예위원장: 진교륜박사, 위원장 장충국박사, 부위원장 헤럴드변, 고문 Rev. Paul 윤